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 한옥의 장기 | 디자인 세상 | 과학과 정성

한옥과 현대생활

천득염

한옥에 배어있는 친환경적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주거형식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은 장구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독특한 주거형식, 즉 한옥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민족 고유언어로서의 전통 주거생활 공간인 한옥을 일시에 버리고 말았다.

일본인들은 한옥이 비위생적일 뿐아니라 비근대적이며 더구나 건축비도 많이 든다고 하여 은근히 건축행위를 억압했다. 군사정권에서도 역시 산림녹화를 목적으로 산림의 벌채는 물론 이의 원인이 되는 목재건축을 짓지 못하도록 권했다.

심지어 목재로 짓지 않으면 안되는 전통건축까지도 콘크리트로 짓도록 명령했다. 한옥을 콘크리트로 만들고 미색을 칠한 전통건축이 한 때를 풍미했다. (이를 박정희식 건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고 이러한 건축형식은 콘크리트형 관공서의 전형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에 우리의 얼이 깃든 전통건축을 버리고 시멘트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축에 익숙해져 갔다. 덕분에 목조건축은 나쁘고 콘크리트는 좋은 건축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믿게 되었고 결국 전 국토가 시멘트 건물로 뒤덮이게 되고 말았다.

도대체 농촌마을에까지 거대한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나무를 다듬는 목수는커녕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초가의 이엉조차도 일 사람이 사라질 지경이다. 한옥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있으나 한옥이 비싸고 불편하다는 편견 때문에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호사가들만의 소유물이 되고 있다.

과연 한옥이 그러한 존재인가? 한옥에 배어있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학성을 보면 웰빙을 구가하려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주거형식이 바로 한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습기와 온도를 조절해주는 흙벽 구조의 친환경성, 지속가능한 재료인 목구조, 겨울공간인 온돌과 여름공간인 마루의 조화, 뜨거운 태양빛을 조절하는 천정과 지붕구조, 습기와 예법을 지켜주는 마루의 높이, '구부러진 놈은 구부러진 대로 곧은 놈은 곧은 대로 쓴다'는 재료사용의 탄력성, 남녀와 상하의 위계가 뚜렷한 공간의 위계성 등 장점이 가득하다.

근자에 들어 한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특히 전남도에서는 도지사 공관을 비롯해 관공서나 전시관, 민박집 등을 한옥으로 짓기를 권장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와 남산골에는 브랜드화된 한옥마을이 있고 경주에서는 국내 최초의 한옥호텔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미 서구화된 주거문화에 익숙해버린 국민들에게 한옥을 즐기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과 계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산천에서 보기 힘든 한옥의 물결이 곧 출렁거릴 것이다. 일본인들은 외교나 비즈니스에 전통 여관인 료칸을 자주 이용한다. 그곳에서 온천을 하고 식사를 하며 다다미방에서 머무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문화적 동화를 느끼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게 될 것이다.

한옥 건립을 장려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일들이 있다. 한옥에 배어있는 친환경적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식 주거생활을 수용하는 표준 설계도서의 작성과 건축시공 지침서 제공, 부재의 규격화와 경량화, 목수 인력의 안정적 공급, 재정적 지원과 건축행정의 단순화, 한옥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 등 한옥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서구식 현대주거가 주는 편리함은 건강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건강한 주거에서 살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은 곧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며 한류(韓流)의 한 장르가 될 수도 있다.

〈전남대 교수, 문화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채홍재

기후변화와 건강

최근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봤다. 기온상승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약 0.74℃ 상승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12년 이후 연평균 기온이 약 1.5℃ 상승해 세계적인 온난화 추세보다 높은 기온 상승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구 온난화 원인은 논란이 많은데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빙하 속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측정한 연구를 보면 지구의 빙하기가 반복되고 있고 간빙기 시기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발생한다는 이론은 1930년대에 유고슬라비아의 지구물리학자인 밀란코비치가 제기한 것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그리는 공전궤도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기온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한반도는 계속 더워지고 있고, 여름철 고온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고온현상은 다른 재해와 달라서 시설물 파괴 같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무더위가 발생하면 인체는 크게 세 가지 생리적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 체내 화학적 에너지 양을 줄이기 위해 식욕이 줄어들고 둘째, 열 방출을 늘리기 위해 혈관이 팽창하고 혈액 순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며 셋째, 체내 과잉 염을 효율적으로 발산하기 위해 땀을 자주 흘린다.

극단적인 고온 현상은 건강문제를 유발하는데, 특히 온대 및 한대 지역의 사망률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1995년 미국 시카고 주변의 중서부 지역에 발생한 폭염으로 700여명이 사망했다. 유럽의 경우 2003년 여름철 폭염으로 프랑스에서 1만5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영국에서는 하루 동안 37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1천1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더위로 희생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질환을 앓고 있거나 냉방시설 없이 혼자 사는 60대 이상 노인들이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1994년 폭염 때 여름철 사망자가 다른 해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시에서 7~8월 질병사망자가 전년도에 비해 626명이 초과했다. 특히 폭염 당일보다는 기온이 정점에 이르고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난 후에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계층에서 특징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했다.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9.7%, 암 관련 사망자도 15.4%가 증가했다.

무더위도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재해로 인식돼야하며,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가족이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놔 드려야겠어"라는 광고 문구가 이제는 '에어컨'으로 바뀌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전남대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기고

윤삼현

몸과 가슴을 키우는 교육에도 관심을

지·덕·체를 갖춘 인격체를 가꾸고 길러가는 것을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두뇌를 키우는 지적 교육, 가슴을 키우는 덕의 교육, 건강한 몸과 체력을 살찌우는 교육이 균형있게 다루어질 때 조화로운 인격체를 길러낼 수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교육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동양이건 서양이건 진·선·미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교육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편식 없는 교육을 펼치고자 노력해 왔다. 되풀이되지만 지적 이성과 정서적 감성의 통합교육이 실현될 때라야 개개인의 건전한 심신을 끌어내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인류가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전인적 교육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한국의 교육현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현행입시정책은 입시 위주의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예전보다는 수시, 정시모집, 내신 반영비율의 다변화 등 다양한 선발방식을 접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여유가 없긴 매일반이다.

학교마다 소위 잘나간다는 일류학교로 보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자꾸만 교육의 진정한 지향처인 전인교육과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태이다. 교과부와 문화부에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일선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우려를 자아낸다.

입시위주의 수업으로 인해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초등 50.3%, 일반계 고교 84.3%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비율이 낮았고 평소 문화예술 공연에 갈 기회가 전혀 없다고 대답한 응답도 21.3%나 되었다. 참여비율이 절반 정도인 초등도 심각하긴 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거의 모든 학생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달린다. 사교육 현장에 내몰리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 잔류하는 학생도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 활동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크게 보면 모든 학생이 입시의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취도가 미진한 학생을 남겨서 보충시간을 갖고 싶어도, 문예,예술 동아리반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싶어도 남기를 꺼려한다. 학원으로 달음박질이다. 머리 키우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 있는 풍토 때문이다.

남보다 한가지라도 더 배울 욕심에서, 경쟁시대에 쳐지지 않기 위해서, 평범한 보통시민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초등때부터 정신없이 사교육 시장으로 뛰어다니는 걸 보면 아이들이 가엾다. 잔디밭에서 시를 창작하여 낭송하거나 동아리반끼리 모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거나 튼실한 체력증진을 위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교육이 참교육이다. 머리만 키우는 교육은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이기적 인격을 낳기 십상이다. 몸과 가슴을 함께 살찌우는 교육이 균형있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장〉

사설

지방 현실 외면한 8·21 종합부동산 대책

정부와 여당이 어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6월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의 돌파구를 주택공급 물량 확대 등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8·2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은 신도시 2곳 건설과 재건축·재개발기간 및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다. 이런 대책으론 지방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건설되면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전매제한이 완화됐고 재개발·재건축시장 규모가 크지 않는 지방으로선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2~3조 원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광주·전남 1만3천여 채 등 전국적으로 13만 채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으로 기대된다. 광주 등 광역시의 1가구 2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환영한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 매입용 자금 2~3조 원은 최대 2억 원짜리 아파트 1만5천여 채를 매입할 수 있을 뿐이다.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준 완화, 담보인정비율 상향 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중대형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지방의 건의사항도 대부분 제외됐다. 수도권에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지방의 수요 진작 방안은 외면한 것이다.

이는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조해온 정부의 방침에도 맞지 않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부동산 투자가 수도권에만 몰리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방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새 정부에 지방은 없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25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찔끔' 대책이 아닌 지방의 부동산경기를 살릴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 세금 탈루 근절할 수 없나

의사와 변호사, 학원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가 새삼스런 현상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나 다름없다. 국세청은 어제 조사가 끝난 고소득 전문직 199명에게 1천271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짙은 13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 199명의 세금 탈루율은 45.1%다. 2005년 조사에서 56.9%, 지난해 47.0%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소득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이다. 추징당한 세금은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에 달한다.

탈루 수법은 여전하다. 한 법무법인은 현금을 내는 고객들에게 수임료를 깎아주는 방식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8억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성형외과 원장은 세무신고가 이뤄진 진료차트만 병원에 두고 비보험 고액 현금결제 수술환자의 차트는 별도 보관하는 수법을 썼다. 외국어학원 원장은 현금영수증 발급분만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16억원은 빼돌렸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공평과세는 공허하다. 소득의 축소신고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봉급생활자 등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결국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세금을 덜 내고 싶은 것이 속성이다. 수법이 아무리 교묘하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세무당국의 책임이 크다. 탈세는 범죄행위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부터 반드시 근절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바란다.

無等鼓

투혼

베이징올림픽 유도 73kg급 결승에서 왕기춘(20)이 단 13초 만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하자 그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은 의아해 했다. 격렬한 예선을 치렀던 왕기춘의 갈비뼈가 이미 부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야 비로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역도 69kg급에 출전한 이배영(29)은 용상 1차 시기에서 184kg에 도전하다 갑자기 왼쪽 장딴지 근육 경련이 생겼다. 힘이 빠진 그는 2차 실패 후 3차 시기에서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끝까지 바벨을 놓지 않으려 이를 악문 그의 표정은 처절했다. 중국의 관영 CCTV는 이배영의 부상 투혼을 고스란히 화면에 담아 올림픽의 '영웅'으로 소개했다.

복싱 라이트급 8강전을 기다리던 백종섭(28)은 기관지 파열 진단을 받았다. 백종섭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자칫 위독할 수도 있다는 진단에 감독의 권유로 기권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네 살짜리 딸에게 약속한 메달을 손에 쥐지 못한 백종섭은 눈물과 함께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딛고 선전한 선수들도 있다. 폴란드의 외팔 탁구소녀 나탈리아 파르티카(19)는 여자 단체전 1차전에서 0-3으로 패했다.자신이 출전한 단식 2경기에서 홍콩의 에이스 티에야나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을 펼쳤지만 세트스코어 2-3으로 아깝게 패했다.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 무릎 아래가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나탈리 뒤 투아(24)는 마라톤 수영으로 불리는 10㎞ 경기에서 16위를 차지했다. 2004년 아테네 대회를 준비하던 그는 2001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치이면서 왼쪽 다리 무릎 밑부분을 잘라야 했다.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했다. 그 중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장애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투혼을 발휘해 심금을 울린 선수들은 훌륭한 장외 금메달감이다.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unipark@

숙박업소 위생품 재탕·삼탕 사용…지자체 위생 점검 필요

회사 일로 출장이 잦다. 한번 나가면 보통 2~3일씩 모텔에서 숙박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모텔에서 면도기를 사용하다가 이것이 새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가 몇 번이나 사용했던 것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텔에서 준 면도기를 사용하려고 포장 비닐을 뜯었는데 두날 면도기의 칼날 사이에 이미 사용했던 사람의 털이 끼여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모텔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난 뒤부터는 면도기 뿐 아니라 칫솔마저도 믿을 수가 없다. 면도기나 칫솔은 입으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생 청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재탕, 삼탕으로 사용한다니 충격적이다.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의 위생점검과 업소 스스로 좀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김용목·광주시 서구 덕흥동

꽃미남·미녀새 등 올림픽 성별언어 남발, 자제해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 성차별적이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어휘들을 자주 접한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림픽 방송을 보면서 아나운서나 리포터, 기자 등 모두가 '꽃미남', '미녀새', '미녀선수', '얼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너무 거슬렸다.

이런 성차별을 느끼게 하는 표현은 일상생활 속 용어에서도 셀 수없이 많다.

예를 들면 효자상품, 바지사장, 성공의 어머니, 형제자매 같은 단어들은 성별언어구조상 성차별적 요소를 띠고 있다. 또 여우, 마초, 쾌남, 집사람, 꼬리친다, 양탈부린다, 안방마님, 조강지처, 영계, 백마탄 왕자 같은 표현들 역시 특정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한다.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말들은 우리의 다른 말과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망인'을 '고 OOO의 부인'으로, '처녀작, 처녀항해'는 '첫 작품, 첫 항해', '집사람, 바깥양반'은 '배우자'로 바꾸어 쓰는게 옳다. 좋은 우리말을 성차별적으로 쓰도록 방치하지 말고 범국민적으로 노력해서 바꿔쓰자.

▲유지영·목포시 수강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